



책속 인물에게 보내는

# 한글 손편지

제6회



《꽃들에게 희망을》 읽고

노랑 애벌레에게

안녕? 나도 너처럼 꿈과 이상을 찾아

헤매는 소년이야.

《꽃들에게 희망을》이란 책을 읽고 너에게

목적 많은 공감을 해서 이렇게 너에게 글을

쓰게 되었어.

나도 어릴 땐 내가 살고있는 곳이 최고 인 줄

알았어. 하지만 9살, 10살, 11살이 되면서

꿈을 찾기 시작했지... 너처럼 말이야. 나는 네가

너와 같은 생각을 가진 너의 친구들로 이루어진

탑을 올라갈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 친구를 받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현실때문에 말이야.

그리고 난 내 자신을 생각해 보았지. 너와

난 참 비슷한 것 같아. 또 내가 힘든 행권별

끝에 친구를 떨어뜨리고 정상에 올랐을때

내가 보았던건 허공에 수없이 많은 애벌레로

이루어진 탑들이었지. 난 네가 나와 같았기에

응원을 했지만 정상은 아무 것도 아닌 허공이었기

때문에 속상하고 안타가웠어.

그리고 나의 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한글박물관